

김종구 차관, 농협 사료공장 현장 방문...의견 청취

사료 수급안정·농가경영부담 완화 '총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목)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

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 물류비 상승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함께,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사료업계도 원료 수급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농협 계통 사료공장이 시장 안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optimes.com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 점검.



▲스마트팜 장비 표준화사업의 착수 행사(농진원 제공)

농진원, 64기종 표준화 확산 돌입한다

국가표준 확산 사업 착수 행사로 달라진 지원 방식 공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령, 이하 농진원)이 4월 17일 농진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팜 장비 표준화 사업'의 착수 행사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장비 간 연동 기준이 부족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로 다른 장비가 잘 연결되지 않아 장비의 유지·보수나 운영에 불편이 컸던 만큼, 장비의 표준화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직접 선택하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참여기업은 시제품 개발, 현장 시험, 보급 등 필요한 분야를 골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시설원예와 축산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논밭 등 노지 분야까지 포함했다. 농진원은 물 주기 장치와 회전식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노지 장비에도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관련 장비 제작을 지원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4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한 장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스마트 농업 현장에 표준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하는지 설명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할 점과 현장 적용 사례도 소개됐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optimes.com

농협사료, 계통공장과 환율리스크 공동대응 체계 강화

계통공장 협력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총력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4월 15일 본사 회의실에서 최강필 대표이사 주재로 '26년도 제2차 '외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사료 원료를 공동 구매하는 계통 가공공장의 구매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환율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통 간의 단결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개별 공장의 대응을 넘어 농협계통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농가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농협사료는 환율 예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대외기관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기존 자문에 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명을 신규 초청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력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 합류한 위원들은 각기 경제적 관점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변수들을 진단했으며, 농협사료는 이러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외환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반기 수출 개선과 WGBI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의 흐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요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경상수지 추이 등 다양한 대외 변수가 맞물리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특정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강필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농협사료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환 관리를 통해 사료 원가를 안정화하고, 축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경 기자
ktya0712@daum.net

국립종자원

과수 종자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 필수

과수 종자(묘목)를 수입하려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시행일 2023.12.28.)

신고대상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과수 종자(묘목)
신고내용	수입 종자의 작물명과 학명, 품종 명칭, 용도, 수량,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등 첨부서류 : 신고품종 사진 또는 카탈로그, (식물검역대상이라면) 식물검역 협력 증명 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대리인 신고시) 대리권 증명서류
증명서발급	종자수입 신고서를 받으면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	농작물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www.seednet.go.kr)
	산림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fsv.forest.go.kr)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 대응 신기술 설명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수질관리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농업용 저수지 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저수지 내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전망하면서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녹조 예방 및

저감에 효과적인 기술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당 설명회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실제로 지난해 발굴된 기술이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적용되는 등 현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녹조 예방·제거 분야 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7곳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수질예측 모델 고도화', 한국수자원공사는 '오염 부하 및 영향 자동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표하며 최신 수질 관리 기술을 공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뒤,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실제 사업에 도입해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optimes.com



▲한국농어촌공사